

대한제국기 각군읍지와 『읍지대장』*

이 재 두**

-
- | | |
|----------------------------|------------------------|
| 1. 머리말 | 4. 읍지수상 이후 각도에서 재차 수집한 |
| 2. 1899년 읍지수상령 직전에 편찬한 읍지 | 읍지 |
| 3. 『읍지대장』과 1899년에 편찬한 각군읍지 | 5. 맺음말 |
-

초록: 1899년(광무 3)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각군의 읍지와 지도 2건씩을 한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1899년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한성부를 포함한 전국 342개 부·군에서 제작한 읍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의 『읍지대장』과 규장각의 청구기호는 1899년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총독부 참서관실에서 조사한 『읍지대장』은 각군읍지를 도별·군별로 번호와 읍지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읍지를 제외하면 1899년에 제작한 312개 군의 읍지 목록이다. 『읍지대장』에 실린 5종 38개 읍지와 강원도 읍지 23종은 내부의 읍지수상령과 관계없는 읍지이다. 강원도의 22종 25개 고을 33개 읍지는 1910년대 초반 총독부 참서관실의 지시로 강원도청에서 제작한 것이며, 강원도 양양군 읍지인 『현산지』도 1911년경에 편찬한 읍지이다. 장서각은 강원도 26개 군의 1899년지를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도서 중에는 1899년에 제작한 각군읍지가 경기도부터 함경북도까지 일정한 청구번호대에 연속해 있다. 1899년 당시의 342개 부·군 가운데, 강원도 26개 군을 제외하면, 『읍지대장』에서는 한성부, 경상북도 경주군, 평안남도 성천군, 함경남도 함흥군의 4개 읍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읍지대장』과 규장각 목록에 실려 있던 평안북도 영변군 읍지는 분실한 상태이며, 성천군 읍지는 ‘후사본 읍지’ 중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규장각과 장서각 도서에서 1899년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한성부·경주군·영변군·함흥군뿐이다.

핵심어 : 大韓帝國, 1899년, 各郡邑誌, 『邑誌臺帳』, 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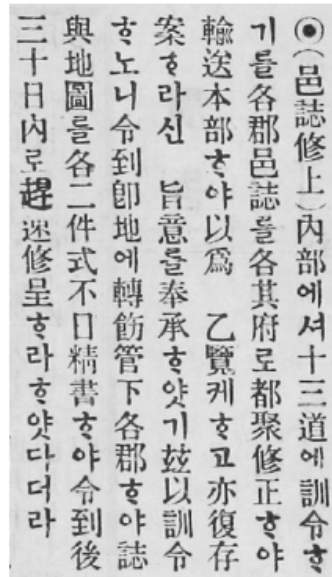
*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 중 ‘VI.1. 全國 邑誌修上令의 실제’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재두, 2021, 『조선후기 관찬읍지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0-207면.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1. 머리말

1899년(광무 3) 4월 대한제국 內部에서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各郡의 지와 지도[誌與地圖]를 각 2건씩 정서하여 30일내로 빨리 올려 보내라는 邑誌修上을 내렸다.¹⁾ 그리하여 각군에서는 대체로 5·6월에 집중적으로 읍지와 지도를 제작하여 군별로 책으로 묶었다. 내부나 각도에서는 읍지에 수록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각군에서는 읍지의 첫 장에 지도를 실었고 구지를 그대로 베끼거나 신설군 등 일부 군에서는 새로 편찬하기도 하였으며, 경기도 등에서는 표제와 내제에 “광무 3년 5월일” 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기도 가평군 등에서는 읍지와 지도를 분리하여 두 책으로 성책하였다.²⁾ 각도에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하고는 각군에서 상송한 읍지를 그대로 내부로 보냈으며, 대한제국이나 조선총독부는 도별로 성책하지 않고 도나 군에서 성책하여 상송한 상태로 관리하였다.

김전배는 1899년 4월 『황성신문』의 읍지수상 기사와 당시 편찬한 규장각과 장서각 읍지의 채색지도 기법이 자못 粗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³⁾ 양보경은 1871년



〈그림 1〉 읍지수상령(『황성신문』

1899년 4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1) 『皇城新聞』 1899년 4월 26일(정대영, 2011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 87면); 『日新』 己亥 三月 十七日 自內部 訓令于十三道 而各郡邑誌 以各其府 都聚修正 輸送本部 以爲乙覽 亦復存案 旨意奉承 茲以訓令 令到卽地 轉飭管下各郡 誌與地圖 各一件式(『皇城新聞』에는 二件式) 不日精書 令到後三十日內 趕速修呈也. 『日新』 권2, 182면; 1899년 음력 3월 17일은 양력 4월 26일에 해당한다.

2) 『가평군읍지성책』(규10729)은 표지를 제외하면 읍지는 4면, 지도는 1면에 불과하다. 제1책 “光武三年己亥五月 日加平郡邑誌成冊”, 제2책 “光武三年己亥五月 日加平郡地圖成冊”

3) 김전배, 1974 『조선왕조의 읍지연구』, 『한국비블리아』 2, 230-231면.

읍지는 군사 중심, 1895년 읍지는 재정중심이었고, 1899년 읍지는 1895-1896년 지방 행정 제도 개편 뒤 지방 실정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하였다.⁴⁾ 그는 19세기 말에 작성한 읍지들은 위기에 부딪친 국가의 동요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통적인 지리인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

정대영은 1899년 전국읍지상송령에 따라 편찬한 읍지의 제작 주체에 대하여 세밀하게 연구하였다.⁵⁾ 그는 1899년에 편찬한 규장각과 장서각의 각 고을 읍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동시기에 내무아문과 황실로 추정되는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읍지를 제작하였으며, 당시 양지아문의 전국측량작업을 고려하면 양지아문이 읍지 제작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201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지리지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고종대의 관찬읍지에 대한 일련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태웅은 광무개혁기인 1899년에는 읍지를 취집하면서도 각 고을의 지도를 취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방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⁶⁾

김백철은 읍지 편찬이 가장 활발했던 고종연간의 읍지에는 집권세력의 교체와 수차례 이루어진 개혁과 지방통치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편찬시기를 흥선대원군집권기·고종친정기·대한제국기·통감정치기로 구분하였으며, 1899년에 편찬한 읍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밝히려고 하였다.⁷⁾

그런데 선행 연구는 1899년 각군읍지의 실상을 다르게 전하고 있다. 일찍이 김전배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현존하는 읍지를 지역별로 집계하여 210종을 제시하였다.⁸⁾ 정대영은 제작월과 인장을 조사하여 규장각과 장서각의 읍지 가운데 ‘원본이

4)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3-118면.

5) 정대영, 2011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 77-113면.

6) 김태웅, 2013 『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 奎章閣 所藏 邑誌를 중심으로』, 『奎章閣』 43, 113-143면.

7) 金伯哲, 2016 『고종대 邑誌의 연대분류 試論 - 규장각 자료의 書誌비교를 중심으로』, 『奎章閣』 49, 279-329면.

분명한 1899년 제작 읍지 99종을 제시하였다.⁹⁾ 규장각의 1899년지는 대체로 1899년 5·6월에 제작하였고, 장서각의 강원도 읍지들은 1899년 1월, 장서각의 경기도 읍지들은 대체로 189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제작된 사실을 밝혔다. 김태웅은 '1899년 읍지·지도 취집 현황' 표를 통해 당시 수집된 규장각 소장의 225개 부·군 읍지를 제시하였다.¹⁰⁾ 김백철은 황해도·함경도·평안도 지역을 빠뜨렸지만, 172개 부·군에서 수집된 읍지의 제첨번호와 판식을 통해 1899년에 제작한 규장각 소장의 읍지들을 제시하였다.¹¹⁾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는 이 사이트에 탑재된 776종 가운데 277종을 1899년지로 파악하고 있다.¹²⁾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읍지 23개를 제외하면, 규장각도서 규10700번부터 규11004번까지의 읍지 254종이며, 『[충청남도]읍지』(규10768)와 『전라북도각군읍지』(규10770)에 각각 37군과 26군을 수록한 점을 감안하면 315개 읍지이다.

〈표 1〉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1899년 각군읍지 현황

	부·군	김전배	정대영	김태웅	김백철	지리정보
경기도	39	62		33	34	50
충청북도	17	8		10	16	16
충청남도	37	1			0	1

- 8) 김전배, 1972 『朝鮮朝의 邑誌 研究 : 現存邑誌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33면. 그는 도표에서 합계가 191종이지만 210종을 제시하였는데, 1899년지로 파악한 황해도 각군읍지 19종을 누락하였기 때문이다.
- 9) 정대영, 앞의 논문, 108-113면.
- 10) 김태웅, 앞의 논문, 122면.
- 11) 김백철, 앞의 논문, 302-318면.
- 12) 조선초기의 『경상도지리지』(규10007, 古4790-39)와 『경상도속찬지리지』(규10008)를 탑재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읍지이며, 읍지와 함께 제작한 읍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동국여지비고』(가람고915.1-D717, 古4790-10)와 『북한지』(규3299, 가람고915.2-Se65b, 한은392)는 읍지이지만 탑재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 지리지열람.

전라북도	26	7		43	29	1
전라남도	34	20			30	34
경상북도	41	8		70	33	44
경상남도	30	23			30	33
황해도	23	(19)		17	미확인	22
평안남도	23	12		36	미확인	22
평안북도	21	18			미확인	21
강원도	26	16		3	0	9
함경남도	14	7		13	미확인	13
함경북도	11	9			미확인	11
계	342	210	99	225	172	277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혔지만 1899년 4월 대한제국 내부 훈령에 따라 각군에서 상송한 읍지 2건 가운데 1건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1899년 한성부를 포함한 전국 342개 부·군에서 제작한 ‘각군읍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총독부 참서관실에서 제작한 『읍지대장』을 보면, 1899년에 제작한 각군읍지 위주로 도별 고을별로 번호와 읍지명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 수집한 1899년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³⁾ 따라서 이 글에서는 1899년 읍지수상령이 내려지기 직전 강원도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의 현황을 살피고, 읍지수상령으로 제작한 각군읍지의 목록을 제시하며, 각군읍지를 중앙으로 상송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제작한 각군의 읍지를 현전하는 읍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邑誌臺帳』(규26750)은 1冊(25張)으로 체크기는 27.5×19.5cm인데, 판심 하단에 朝鮮總督府를 새긴 13행 규모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으며, 1910년대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에서 邑誌의 정리를 위해 도별로 各郡의 邑誌名을 적어놓은 것이다. 1899년에 제작한 규장각 소장 각군읍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참서관실은 1912년 4월 淸조국을 폐지하면서 ‘규장각도서’를 관리하던 곳이다. 김태웅, 1994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99면.

2. 1899년 읍지수상령 직전에 편찬한 읍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강원도 26개 군의 읍지를 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1899년(광무 3) 1월에 편찬한 읍지를 중심으로 이후 상송한 읍지를 군별로 성책한 것이다.¹⁴⁾ 대부분 1899년 5·6월에 편찬한 규장각의 1899년지 이전에 편찬한 읍지를 포함하고 있다.¹⁵⁾ 내제를 보면, 금성군·삼척군·안협군·양양군·통천군·평강군·홍천군·흡곡군이 1899년 1월이며, 모든 읍지는 선생안을 수록하였다. 철원군에는 3월에 이어 6월에 다시 수정한 읍지를 합철하였다.¹⁶⁾ 안협군에도 1899년 1월에 이어 4월에 편찬한 읍지가 실려 있다.¹⁷⁾ 인제현과 양구군도 2종인데,¹⁸⁾ 『양

14) 『江陵府誌』(K2-4202, 鄭憲時1897-), 『高城郡邑誌』(K2-4211, 李熙寅1896-), 『金城邑誌』(K2-4223, 韓秉會 1898-), 『金化郡邑誌』(K2-4224, 7월, 金進洙1898-), 『金化邑誌』(K2-4225, 7월, 李昌夏1906-07), 『狼川郡邑誌』(K2-4228, 1898년 11월, 金汶秀1897-), 『三陟郡邑誌』(K2-4245, 李鼎宰1884-96), 『水城誌』(K2-4250, 간성군, 權世圭1897-), 『安峽邑誌』(K2-4258, 丁大植1894-96), 『楊口邑誌』(K2-4259, 白冀洙1896-, 沈元澤1839- 1840), 『襄陽郡邑誌』(K2-4262, 金靖鎮1894-95), 『寧越郡邑誌』(K2-4272, 金弼鉉1898-), 『蔚珍邑誌』(K2-4285, 金相一1898-99), 『原州邑誌』(K2-4283, 洪秉憲1897-), 『伊川邑誌』(K2-4288, 黃兢淵1896-99), 『麟蹄縣邑誌』(K2-4289, 鄭基恒1897-), 『旌善郡誌』(K2-4300, 金蘭圭1896-), 『鐵原郡邑誌』(K2-4315, 3월, 6월, 金基俊1897-97), 『春川誌』(K2-4319, 鄭鳳時1896-97), 『通川郡邑誌』(K2-4322, 朴時秉1894-97), 『平康郡邑誌』(K2-4324, 金泳圭1897-98), 『平昌郡誌』(K2-4329, 嚴柱沆1896-97), 『平海邑誌』(K2-4330, 鄭賢朝1894-97), 『洪川郡邑誌』(K2-4338, 宋鍾徽1897-98), 『淮陽郡邑誌』(K2-4342, 朴用憲1898-), 『橫城邑誌』(K2-4343, 李弼榮1896-97), 『歙谷邑誌』(K2-4344, 郭鍾元1897-9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 17-18,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참고.

15) 정대영, 앞의 논문, 96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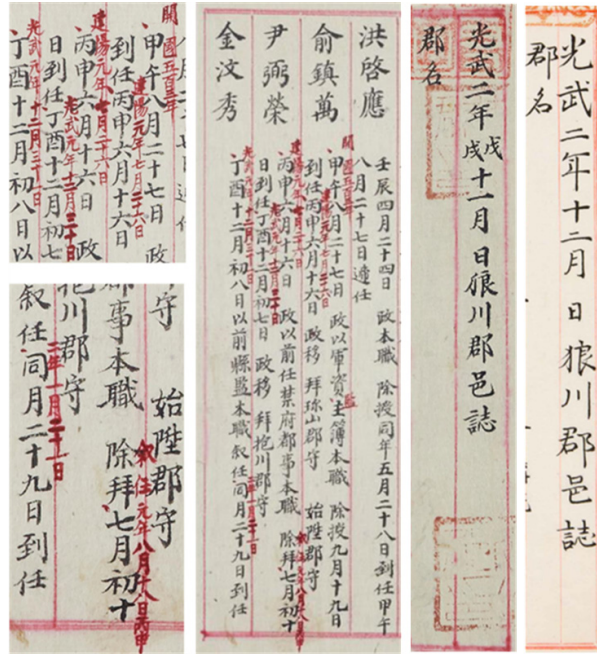
16) 『鐵原郡邑誌』(K2-4315) 光武三年三月 日鐵原郡邑誌, 鐵原郡邑誌 光武三年六月更修正成冊來.

17) 『安峽邑誌』(K2-4258) 光武三年一月日安峽郡邑誌總目, 安峽地圖(2장), 光武三年四月日安峽郡邑誌總目.

18) 『麟蹄縣邑誌』(K2-4289) “道光二十三年麟蹄縣邑誌”, “光武三年二月日麟蹄郡衙舍樓臺形勝題詠文”; 『楊口邑誌』(K2-4259) 『楊口縣誌』 선생안 “白冀洙 丙申七月十二日到任(1896-)” 『楊口縣誌』 양구현선생안 “沈元澤 己亥七月二十二日到任 庚子五月十六日遭喪遞(1839-1840)”

구읍지』에 합철한 『양구현지』는 1843년 헌종대에 편찬한 『관동읍지』의 『양구현지』와 수록 내용이 동일하다.¹⁹⁾ 흡곡군은 읍선생안에 沈興澤(1896-97)까지 정서한 뒤, 郭鍾元(1897-98)을 추기하면서 『歙谷誌續錄』을 실었다. 김화군의 표제(光武三年七月日金化郡邑誌)는 다른 군보다 늦은 1899년 7월에 편찬한 사실을 전해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낭천군의 내제에는 1898년(광무



〈그림 2〉 『낭천군읍지』와 『화천군읍지』 ©藏書閣, 奎章閣

2) 11월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안의 음력으로 표시한 원문 옆에 개국·건양·광무 등의 연호와 양력을 표시한 것을 보면 내제의 ‘광무 2년 무술 11월’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898년 11월은 1898년 12월 중순부터 1899년 1월 중순에 해당한다.²⁰⁾ 後寫本人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화천군읍지』는 내제를 ‘광무 2년 12월일 낭천군읍지’로 고쳤으며 선생안을 생략하였다. 화천군은 1902년 낭천군의 변경된 군명이다.²¹⁾ 이러한 사실은 1899년 양력 12월부터 1월에 걸쳐 강원도 지역에 읍지수상령이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강원도 각군의 도지

19) 『관동읍지』(일본 동양문고 Ⅶ-2-147) 6-4 『양구현지』.

20) 1898년 음력 11월 1일은 양력 12월 13일, 11월 30일은 양력으로는 1899년 1월 11일에 해당한다.

21) 『고종실록』 권42, 고종 39년 양력 5월 10일 “十日. 勅令第八號 歙谷·安邊兩郡區域改正件. 第九號 狼川郡以華川郡改正件. 竝裁可頒布”

수집은 1899년 4월 전국에 내려진 읍지수상령 직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보인다.

한편, 규장각의 '강원도 읍지'(규10955-규10976)는 1910년대 초반인 일제강점기에 후사한 22종 25개 고을 33개 읍지(울진·평창은 3, 양구·통천·화천·회양은 2종)이다.²²⁾ 모두 판심에 '江原道', 우측면 하단에 '美濃全羅紙'라고 인쇄한 용지를 이용하였고, 표지에는 제 몇 호라는 題添을 붙였다. 총독부 參事官室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청에서 1899년지를 중심으로 재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읍지』의 표제와 내제는 '광무 3년 1월일 홍천군읍지'이다. 『흡곡군읍지급선생안』도 표제와 내제가 '광무 3년 1월일 흡곡군읍지급선생안'인데, 『통천군읍지』 2종을 합철하였다.²³⁾ 장서각 『김화군읍지』의 표제에는 1899년 7월에 편찬한 사실을 밝혔으나, 규장각의 후사본은 '광무 3년 7월일'을 생략하였고, 선생안은 마지막에 수록했던 김진수가 1901년 곤양군수로 이배된 사실부터 1906년 부임한 이창하가 1907년 물러난 사실까지 추기하였다. 대체로 원본이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읍지인 경우가 많으나, 철원군·정선군·평창군·횡성군·평강군 읍지의 원본은 장서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 2〉는 규장각의 강원도 후사본 읍지를 제첩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수록내용이 동일한 장서각본을 열거한 것이다.

22) 『삼척군읍지』(규10955), 『양양군읍지』(규10956), 『고성군읍지』(규10957), 『영월군읍지』(규10958), 『평창군신지』(규10959), 『강릉부지』(규10960), 『화천군읍지』(규10961), 『김화군읍지』(규10962), 『양구군읍지』(규10963), 『철원군읍지』(규10964), 『홍천군읍지』(규10965), 『정선군읍지』(규10966), 『원주읍지』(규10967), 『울진군여지약론』(규10968), 『평해군읍지』(규10969), 『횡성군읍지』(규10970), 『흡곡군읍지급선생안』(규10971), 『간성군읍지』(규10972), 『회양군읍지』(규10973), 『이천읍지』(규10974), 『평강읍지』(규10975), 『관동읍지』(규10976).

23)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국립중앙도서관 조92-4) 123쪽에는 『흡곡통천군읍지』로 나온다.

〈표 2〉 강원도의 후사본 읍지와 장서각의 1899년지

규장각		장서각		규장각		장서각	
제첨	서명	청구기호	서명	제첨	서명	청구기호	서명
1	강릉부지	K2-4202	江陵府誌	13	횡성군읍지		
2	삼척군읍지	K2-4245	三陟郡邑誌	14	홍천군읍지	K2-4338	洪川郡邑誌
3	양양군읍지	K2-4262	襄陽郡邑誌	15	회양군읍지	K2-4342	淮陽郡邑誌
4	평해군읍지	K2-4330	平海邑誌	16	철원군읍지		
5	간성군읍지	K2-4250	水城誌	17	양구군읍지	K2-4259	楊口邑誌(1)
6	흡곡군읍지급선생안	K2-4344	歙谷邑誌(1)	18	화천군읍지	K2-4228	狼川郡邑誌
	부 통천군(1)			19	김화군읍지	K2-4224 K2-4225	金化郡邑誌 金化邑誌
	부 통천군(2)	K2-4322	通川郡邑誌	20	이천읍지	K2-4288	伊川邑誌
7	울진군여지약론(1,2,3)	K2-4285	(2)蔚珍邑誌	21	평강읍지		
8	고성군읍지	K2-4211	高城郡邑誌	22	관동읍지		
9	원주읍지	K2-4283	原州邑誌		(1)낭천현		
10	정선군읍지				(2)춘주지	K2-4319	春川誌
11	영월군읍지	K2-4272	寧越郡邑誌		(3)회양지	K2-4342	淮陽郡邑誌
12	평창군신지지(1,2,3)				(4)금성현	K2-4223	金城邑誌(2)
					(5)양구현	K2-4259	楊口邑誌(2)
				(6)인제현	K2-4289	麟蹄縣邑誌	

『관동읍지』는 제첨에 희미하나마 ‘〇—’자가 있는 것을 보면 제22호에 해당한다. 『원주읍지』·『울진군여지약론』·『흡곡군읍지급선생안』(통천군 2종 포함)은 제첨 번호를 알기 어려운데, 제6·7·9호 가운데 하나씩일 것이다. 그런데 『읍지대장』에는 강원도 후사본 읍지 전체의 제첨번호가 실려 있는데,²⁴⁾ ‘6 흡곡군, 7 울진군, 9 원주군’이다. 『관동읍지』에는 낭천현·춘천부(춘주지)·회양부(회양지)·금성현·양구현·인제현 6개 고을 읍지를 합철하였다. 양구는 2종으로 『관동읍지』에 실린 읍지와 제17호 『양구군읍지』이다. 1902년 낭천군이 화천군으로 개칭한 점을 고려

24) 『邑誌臺帳』에는 강릉부부터 인제까지 10864부터 10890까지 번호를 표시해두었는데, 청구기호를 확정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규장각의 청구기호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마지막의 『관동읍지』은 분책할 계획이었던지, 낭천, 금성, 춘천, 양구, 회양, 인제의 광곽 위에 10885부터 10890까지 군별로 번호를 지정하였다.

하면,²⁵⁾ 낭천도 2종으로 『관동읍지』에 실린 읍지와 제18호 『화천군읍지』이다. 『관동읍지』 낭천현은 이마니시문고의 『춘천지』(부 낭천) 낭천현의 이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읍지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현계·건치연혁·진관·군명·방리·산천·풍속·성씨를 생략하고 능침 이하의 내용을 수록한 뒤 선생안을 부기하였다. 선생안은 『낭천현읍지』(규17520)의 선생안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이마니시문고 『춘천지』(부 낭천) 낭천현이나 이 읍지를 후사하고 선생안을 추가한 『낭천현읍지』(규17520), 혹은 이 읍지와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읍지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²⁶⁾ 『평창군신지지』와 『울진군여지약론』에는 평창군과 울진군의 읍지를 3종씩 실고 있다. 『이천읍지』는 관안이李文夏까지인데, 1911년에 부임하여 1920년 安允玉으로 교체되었다.²⁷⁾ 『평강읍지』는 선생안이 申澤永까지인데, 1908년 1월 도입하여 1914년 양양군수 吳台煥과 교체되었다.²⁸⁾ 후사 과정에서 선생안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규10955번부터 규10976번까지의 강원도 22책은 1911년부터 1914년 사이에 재필사한 후사본으로 보인다. 양양군 읍지인 『峴山誌』(규10977)는 1911년 경의 읍지이지만, 후사본 ‘강원도 읍지’와는 달리 미농전과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1899년지는 다른 도와 달리 일제강점초기 대한제국 황실도서가 규장각도서와 이왕직도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왕직이 관리하던 장서각 소장 도서가 되었다. 그리하여 ‘규장각’의 1899년지에는 강원도 읍지만 빠지게 된 것이다. 장서각의 읍지는 규장각과 달리 1899년 초에 편찬한 읍지와 합철한 경우가 많다. 이에 1910년대 초반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고 있던 총독부 참서관실은 강원도청으로 하여금 강원도 각군의 읍지를 베껴 보내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대체로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한 1899년지를 중심으로 베끼면서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선생안 등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면서 1899년 이후의 상황을 추가한 듯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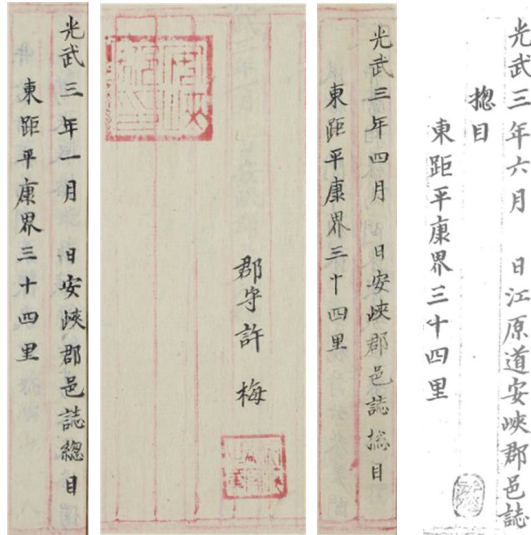
25) 『고종실록』 권42, 고종 39년 양력 5월 10일.

26) 『春川誌』(附 狼川, 이마니시필름 54필, 天理圖書館 292.1-夕173,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古2781-1).

27)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직원록자료 지방관서>강원도>부군도(府郡島)>이천군 군수.

28)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지방관서>강원도>부군도(府郡島)>평강군 군수.

다. 후사본 ‘강원도 읍지’ 가운데 안협군이 유일하게 빠져 있지만, 안협군도 후사본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장서각에는 1899년 1월과 4월, 이마니시문고에는 6월에 편찬한 『안협군읍지』를 소장하고 있다. 『안협군읍지』는 3종 모두 내제 기재방식이 같고, 권말에는 ‘郡守 許梅’와 함께 관인이 두 군데 찍혀 있다.²⁹⁾ 강원도 각군에서도 1899년 1월에 이어 5·6월에 다른 지역에서처럼 읍지를 편찬한 사실을 보여준다. 강원도 1899년 1월지에 이어 함께 성책한 장서각의 읍지는 대체로 전국 읍지수상령에 따라 편찬한 각군읍지로 보인다.



<그림 3> 『안협군읍지』 ©藏書閣, 今西文庫

3. 『읍지대장』과 1899년에 편찬한 각군읍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에는 776종의 읍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구기호 앞에 ‘규’(奎貴 포함)가 붙은 ‘규장각도서’는 590종이다.³⁰⁾ <표 3>은 『경상도읍지』(규666)부터 『예수원』(규27597)까지의 읍지류에 부여한 청구기호와 서명이다.

29) 『江原道安峽郡邑誌』(이마니시필름 26릴, 天理圖書館 292.1-夕151,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古2789-2).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 2020. 10. 01.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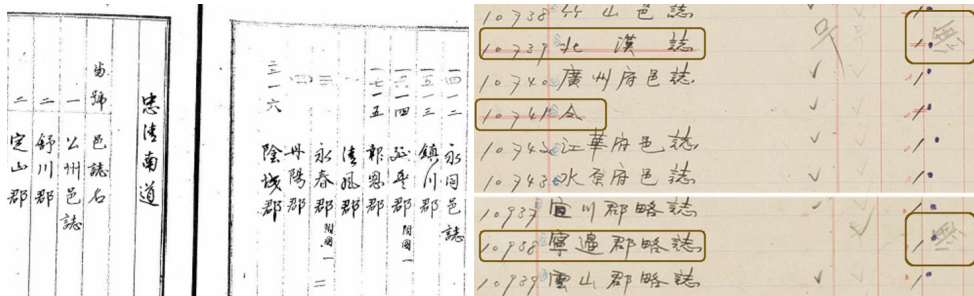
〈표 3〉 규장각도서 읍지류의 청구기호와 서명

연번	청구기호	읍지 서명	연속성	종수
1	규666-규10008	『경상도읍지』-『경상도속찬지리지』	간헐적	28종
2	규10699-규11004	『강화부지』-『명천읍지』	연속적	305종
3	규11073-규11969	『영주군읍지』, 『적성지』, 『울산읍지』, 『동래부지』, 『예천군읍지』	간헐적	5종
4	규12168-규12204	『관서읍지』-『평안도성천부사례』	연속적	35종(220책)
5	규12249-규17202	『함주지』-『예천군신정사례』	간헐적	19종
6	규17355-규17539	『영종진읍지』-『함경북도무산부읍지』	연속적	185종
5	규19292-규27597	『대부도신정사례』-『예수원』	간헐적	13종

〈표 3〉 연번 6은 『성천읍지』(규17487)를 제외한 184책 188개 고을 189개 읍지(부안현은 2종)가 후사본이다. 원본은 이마니시문고·장서각·상백문고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³¹⁾ 연번 4의 35종 220책은 1871-72년과 1894-95년에 수집한 도별 읍지와 읍사례이다.³²⁾ 분량이 많고 번호별로 여러 책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고을로 파악하면 훨씬 많은 수의 읍지를 포함하고 있다.

31) 평안도 『성천읍지』(규17487)는 1899년에 상송한 읍지이다. 『성천지』(규17486)나 다른 후사본 읍지들과 달리 장당 20행의 朱絲欄印札板이 찍힌 종이에 필사하였고 표지도 확연히 다르다. 전라도 『제주대정정의읍지』(규17436)에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을, 『용안현읍지』(규17414)에는 여산부를, 평안도 『가산군여지승람』(규17492)에는 개천군을 합철하였다. 『부안현읍지』(규17408)에는 『부안현읍지』와 『부안현여지승람』 두 종류의 고을 읍지를 실고 있는데, 각각 『여지도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수록 내용과 동일하다. 이재두, 2020a 『규장각 일부 후사본 읍지와 이마니시문고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74, 211-212면.

32) 읍지나 읍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軍國總目』(奎12195)와 『忠翊府式例』(奎12196)를 제외하고, '奎貴'에 해당하는 『영남감영사례』(규귀12197), 『대구부사례』(규귀12198), 『영남진사례』(규귀12199), 『호남영사례』(규귀12201), 『관북역사례』(규귀12202), 『관서영사례』(규귀12203), 『평안도선천부사례』(규귀12204)를 포함한 수치이다. 『기전영사례』(규12200)는 奎貴로 구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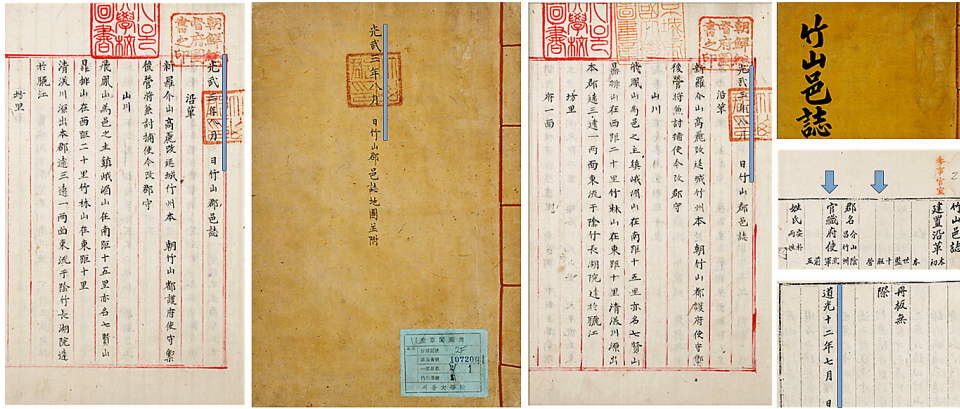
〈그림 4〉 『읍지대장』과 『[규장각]도서출납부』 한국본

©奎章閣

연번 2도 연번 4·6처럼 읍지가 연속해 있는데, 대부분 개별읍지이며, 다수의 읍지가 1899년지이다. 청구번호를 하나로 지정한 『죽산군읍지』(규10720-1, 규10720-2)가 동일한 읍지 2종이어서 모두 305종이다. 대부분 1899년지로 표지에는 순서를 매긴 제첩이 붙어 있고, 1910년대 초반에 후사한 ‘강원도 읍지’를 제외하고는 ‘참사관실’ 印記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제16호는 1899년지인 『여수군읍지』(규10803)만이 아니라, 1902년에 간행한 『여수지』 인쇄본 가운데 하나(규10795)에도 제첩 제16호와 참사관실 인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제첩이나 참사관실 인장이 찍혀 있다고 하여 모두 1899년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소’(『광주부읍지』, 10741) 위에 붉은 선을 그은 것을 보면 당시 도서 조사에서는 분실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후의 조사 때에는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듯하다. 그런데, 붉은 선을 그은 읍지 권수 옆에 연필로 쓴 ‘無’를 보면 『북한지』(10739)는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고, 이전 조사에서는 존재하였던 『영변군읍지[寧邊郡略誌]』(10938)도 없는 것이 확인된 듯하다.³³⁾

앞서 규장각의 ‘강원도 읍지’에서 보았듯이 『읍지대장』은 1899년에 제작한 읍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은 도별 고을별로 각군읍지의 번호와 읍지명을 기재한 것이다. 경기도의 『중경지』는 목활자본이지만, 표지에 ‘개성부지’라고 쓴 제첩 옆에 ‘제32호’라는 붉은 글씨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1899년에

33) 『[규장각]도서출납부』(규26798).



〈그림 5〉 『죽산군읍지』(2종)와 『죽산읍지』

©奎章閣

상송한 읍지이다. 『양주군읍지』·『삭녕지』·『고양군여지승람』도 1899년에 편찬한 것으로 제첩을 제거한 흔적이 남아있다.³⁴⁾ 『읍지대장』에 의하면, '32 개성부지 1,2,3,4'이며, '1 양주군', '7 삭녕군', '28 고양군'이다. '2 안성군', '16 통진군', '27 가평군'에는 '부도1'을 부기하였는데, 읍지와 지도를 분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죽산군은 26에 3종이 실려 있는데, '26 죽산', '26 죽산군', '26 죽산군'이다.

현재 규장각은 1899년(광무 3)에 편찬한 3종의 죽산군 읍지를 소장하고 있다. 1899년 4월 말 내부의 지시로 각군에서는 읍지를 편찬하여 상송하였지만, 죽산군은 제때 상송하지 못한 듯하다. 이에 1832년지인 『각도읍지』 죽산부(2-3)를 베껴 경기도 읍지 전질을 갖출 수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각도읍지』에 없는 고을 읍지를 대상으로 보유편을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그림 5〉 오른쪽의 『죽산읍지』(규10738)는 표지에 제첩한 흔적이 있고, 내제 상단의 참서관실 인기 옆에는 연필로 쓴 26이 적혀 있다. 인찰공책지 5행과 8행 상단 테두리에 흠이 파져있고, 지도는 '죽산지도'라는 제목을 단 방안식 지도이다. 『죽산읍지』는 지도를 제외하고는, 『각도읍지』 권말에 실린 '도광 12년 7월 일'까지 원

34) 『중경지』(규10734), 『양주군읍지』(규10733), 『삭녕지』(규10718), 『고양군여지승람』(규10709).

35) 이재두, 2020b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4, 397-399면.

본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³⁶⁾ 그런데 1899년 8월 죽산군에서 『죽산군읍지』 2종을 상송하게 되면서, 규장각은 죽산군 읍지 3종을 소장하게 된 것이다.

『읍지대장』 충청북도의 '1 옥천읍지, 2 청풍, 영춘, 제천, 단양'은 『옥천읍지』(규10764)와 『충청북도각군읍지』(규10763)로 1895년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3부터 16까지 17개 읍지는 충청북도 1899년지에 해당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읍지대장』 충청북도 제15호에는 보은군, 청풍군, 영춘군(부도1), 단양군을 나열하였는데, 현재 규장각도서에는 네 군의 읍지가 개별읍지로 성책되어 있다.

1899년에 편찬한 읍지 가운데 도별로 성책한 지역은 충청남도과 전라북도뿐이다. 『[충청남도]읍지』(규10768)는 충청남도 37개 군을 모두 수록하였다. 제첩의 제호는 도 관찰부가 있던 공주군부터 시작하며, 현재 규장각에서 제시하는 제책 번호와 다르다.³⁷⁾ <표 4>는 제첩 번호를 기준으로 『[충청남도]읍지』에 수록한 각군 읍지를 나열한 것이다.

<표 4> 『[충청남도]읍지』에 수록된 각군 읍지

제첩 번호	제책 번호	계	해당 군
제1호	제5책	1	공주
제2호	제6책	9	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정산·청양·대흥·홍주
제3호	제3책	12	면천·당진·덕산·해미·서산·태안·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
제4호	제2책	2	천안·직산
제5호	제1책	3	연기·전의·목천
제6호	제4책	10	평택·온양·아산·예산·신창·석성·부여·임천·홍산·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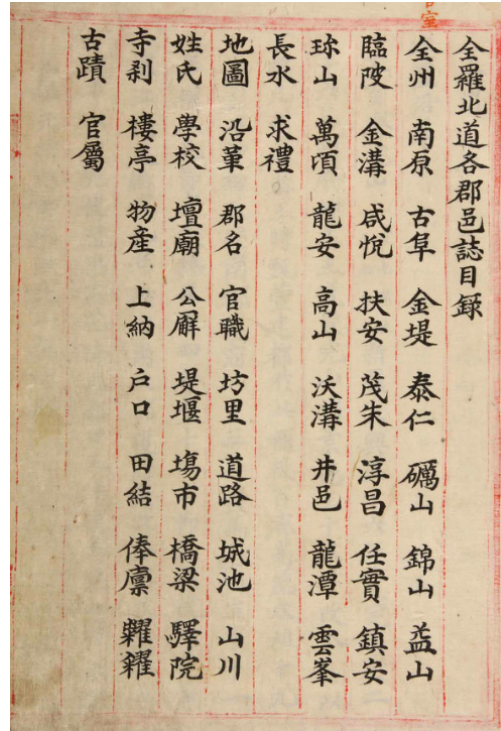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호남읍지』 유형 항목 가운데 절반

36) 이재두, 2020b 앞의 논문, 398면, 주 64).

37) 『읍지대장』 충청남도에는 7부터 13까지, 평택군부터 태안군까지 모두 31개 고을을 기재하였는데, 1895년에 제작한 『[호서]읍지』(규10767)이다.

만 남기고 官屬을 신설하였다. 『전라북도각군읍지』는 전라북도 관찰부에서 26개 군 읍지를 일정하게 필사하였는데, 판심상단에 전라북도가 새겨진 붉은색 인찰공책지를 사용하였다.³⁸⁾ 당시 전라북도 관찰부에 『호남읍지』 유형의 도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록 항목이 동일한 도지를 편찬할 수 있었다. 『읍지대장』 전라북도에는 1 전라북도각군읍지에 이어 전주군부터 구례군까지 26개 군을 나열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 무장군, 3 고창군, 4 흥덕군 순이다. 1899년 당시 무장군·고창군·흥덕군은 전라남도, 구례군은 전라북도 소속이었다.

『읍지대장』 전라남도에는 '1 순천군'부터 '31 광주읍지'까지 32개 읍지를 실고 있는데, 여수군은 '16 여수군'에 이어 '16 여수읍지'를 실고 있는데, 각각 『여수군읍지』(규10803)와 『여수지』(규10795)이며, 『여수지』는 다른 읍지들과 달리 1902년 인쇄본이다.



〈그림 6〉 『전라북도각군읍지』
전라북도각군읍지목록 ©奎章閣

38) 『전라북도각군읍지』(규10770) 수록항목을 『호남읍지』 유형 순서대로 파악해 보면, 地圖, ①建置沿革, ②郡名, ③官職, ④坊里, ⑤道路, ⑥城池, ⑦山川, ⑧姓氏, ⑩學校, ⑫壇廟, ⑬公廨, ⑰堤堰, ⑱場市, ⑲橋梁, ⑳驛院, ㉑寺刹, ㉒樓亭, ㉔物產, ㉖進貢, ㉘上納, ㉚戶口, ㉜田塹, ㉞俸廩, ㉟糶糶, ㊱軍器, ㊳古蹟, 官屬 순이다. 권두의 목록에는 ㉗진공이 없으나, ㉖進貢은 대부분의 군에서 수록한 항목이다. 『호남읍지』 유형 수록항목 중에서 ⑨풍속, ⑪서원, ⑭관애, ⑮진보, ⑯봉수, ⑰목장, ⑱형승, ㉑도서, ㉓전세, ㉕대동, ㉗군세, ㉙요역, ㉛창고, ㉝군기, ㉟군약, ㊱노비, ㊳선생안, ㊵인물, ㊷과환(문과·무과·음사·생진·행의), ㊹책판을 생략하였다.

『읍지대장』 경상남도에는 '1 초계군'부터 '30 남해군'까지 경상남도 모든 군의 읍지를 수록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 성주군'부터 '40 장기군'까지로 경주군은 보이지 않는다. 『읍지대장』 제작 당시 경주군의 읍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읍지대장』 황해도는 '1 해주군 1,2'부터 '23 신계군'까지이다. 봉산군은 '7 봉산 읍지'와 '7 봉산지도'인데, 읍지와 지도를 따로 성책하였기 때문이다. 제철을 보면, 1876년에 간행한 구지를 베낀 황해도 『연안부지』는 제3호, 1760년지를 전사한 『신계현읍지』는 제23호, 1854년(崇禎紀元後四甲寅正月日)에 간행한 구지를 베낀 평안도 『선천군읍지』는 제8호이다. 1899년에 구지를 베껴 상송한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읍지대장』 강원도는 '1 강릉부'부터 '22 관동읍지, 낭천, 금성, 춘천, 양구, 회양, 인제' 순이다. 안협군과 통천군이 보이지 않지만, 통천군은 '6 흡곡군'에 2종의 읍지를 합철하였으며, 안협군은 확인되지 않는다.

『읍지대장』 평안남도는 '1 함종군'부터 '22 평양읍지'까지이다. 성천군이 보이지 않지만, '후사본 읍지'에 섞여 있는 『성천읍지』(규17487)가 성천군의 1899년지이다. 『읍지대장』 평안북도에는 '1 창성군'부터 '21 박천군'까지 21개 군의 모든 읍지가 실려 있다. 그런데 '9 영변군'은 회수되지 않아 현재 규장각에는 『영변군읍지』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강계군·자성군·후창군은 읍지와 지도를 따로 성책하였기 때문에 '7 강계군'과 '7 강계군지도', '12 자성군'과 '12 자성군지도', '19 후창군'과 '19 후창군지도'이다. 『읍지대장』 함경남도는 '1 덕원부읍지'부터 '13 단천군'까지이며, 함경북도는 '1 경성군'부터 '11 경원군'까지이다.

규장각의 1899년지는 대체로 1899년 5·6월에 편찬하였으며, 내부의 읍지수상령에 따라 각군에서 '한 달 안'에 필사하여 상송한 2건 가운데 1건이다. 규장각의 청구기호 규10699번부터 규11004번까지의 읍지 가운데 251종 311개 부·군 읍지(죽산군은 2종)는 1899년에 수집한 읍지이다. 경기도 38, 충청북도 17, 충청남도 37, 전라북도 26, 전라남도 34, 경상북도 40, 경상남도 30, 황해도 23, 평안남도 22, 평안북도 20, 함경남도 13, 함경북도 11개 부·군 읍지이다. 『성천읍지』(규17487)를 포함하면, 규장각은 1899년에 제작한 252종 312개 부·군 313개 읍지(죽산군 2종)를 소장하고 있는데, 강원도를 제외한 수치이다. 1899년 강원도에서 제작한 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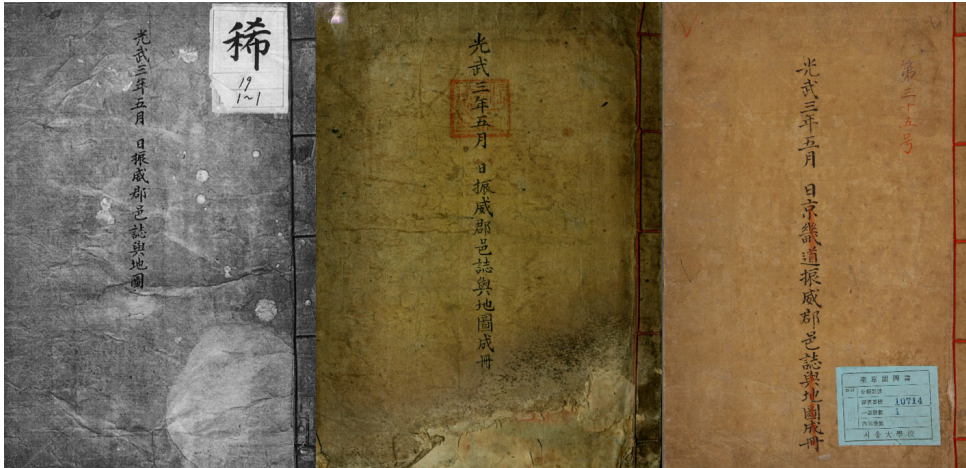
군의 읍지는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1899년 당시 지방행정구역인 342개 부·군 가운데, 338개 군의 읍지는 확인 가능하고, 한성부, 경상북도 경주군, 평안북도 영변군, 함경남도 함흥군의 4개 읍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영변군은 읍지를 제작하였지만 분실한 것이 분명하지만, 한성부·경주군·함흥군에서의 읍지 제작 여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이들 고을에는 『동국여지비고』,³⁹⁾ 『東京雜記』, 『威山誌通記』 등 수록내용이 충실한 읍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1899년에 제작한 各郡邑誌에는 1896년에 신설한 전라남도 지도군·완도군·돌산군과 1897년에 신설한 여수군, 1898년에 신설한 함경북도 성진군의 읍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읍지에는 13도제를 반영한 “-남도·-북도” 혹은 “-군읍지”의 서명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읍지는 대부분 군별로 성책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별로 부를 때는 『전라북도각군읍지』처럼 13도제에 맞게 도별로는 ‘경상북도각군읍지’·‘경상남도각군읍지’, 혹은 ‘경상북도읍지’·‘경상남도읍지’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제작한 경기도 읍지 중 일부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京畿道圖書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⁴⁰⁾ 진위군의 읍

39) 『東國輿地備攷』는 본문 중에 ‘정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고종 즉위 이후의 기록인 금상을축년(1865)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의 『동국여지비고』(古4790-10)가 선본으로 1권은 52장 104면, 2권은 51장 102면이며,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교편(『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 160-434면)으로 번역되어 있다. 서울대의 『동국여지비고』(가람古915.1-D717)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동국여지비고』(古2710-2-137)는 後寫本이다.

40)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의 『京畿道始興郡邑誌』(B16BB-0002), 『富平郡邑誌』(B16BB-0016), 『振威郡邑誌』(BB16BB-0041), 『砥平郡邑誌輿地圖』(B16BB-0037)의 표제에는 모두 ‘光武三年五月日’을 표시하였다. 1899년 각군에서 상송한 2건의 읍지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陽城郡邑誌附地圖』(B16BB-0025)와 『通津邑誌』(B16BB-0054)도 규장각의 1899년지인 『陽城邑誌』(奎10732)와 『通津郡邑誌』(奎10704)와 동일하다. 한편,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경기도 『진위군읍지』(20.25)는 1899년 5월에 편찬한 읍지로 규장각과 존경각의 1899년지와 동일하다. 표제는 ‘光武三年五月日振威郡邑誌輿地圖成冊’, 표제 다음의 첫 장 제목은 ‘光武三年己亥五月日振威郡邑誌輿地圖成冊’이며, 권말에는 군수 金思弼이라 쓴 뒤 ‘振威郡守之章’을 찍었다. 표제의 ‘3년 5월’ 위에 찍힌 ‘振威郡印’은 규장각본과 존경각본에는 없다. 한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京畿道圖書인 『과천군읍지』(고915.12-G994c), 『광주부읍지』(고915.12-G994b), 『교동군읍지』(고915.12-G999g), 『교하군읍지』(고915.12-G999h), 『마전군읍지』(고



〈그림 7〉 『진위군읍지』 3종 ©尊經閣, 버클리대(고려대해외한국학자료센터), 奎章閣

지는 3종이나 확인되며, 『포천군읍지』(규10730) 표제에는 內部, 『포천군읍지』(고915.12-P751g)에는 觀察府를 기재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읍지수상령이 내려졌을 때 경기도 각군에서는 내부상송용과 관찰부상송용을 제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규장각의 광주부·수원부·이천군의 읍지는 界線과 印記가 없고 四針線裝인데, 경기도도서의 해당읍지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

4. 읍지수상 이후 각도에서 재차 수집한 읍지

결국 <표 3> 연번 2의 읍지 305종 가운데 내부의 읍지수상령에 따라 편찬한 251종을 제외하면, 54종은 1910년대 초반에 제작한 강원도 읍지 23종과 전국 읍지수상령과 거리가 있는 읍지 31종이다. 『읍지대장』에는 31종 가운데 5종 38개 읍지가

915.12-M289g), 『수원군읍지』(고915.12-Su93g),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고915.12-Y17g), 『양천군읍지』(고915.12-Y17c), 『용인군지』(고915.12-Y8g), 『이천부읍지』(고915.12-Ic3g), 『인천부읍지』(고915.12-In2b), 『장단군읍지』(고915.12-J255d), 『적성군지』(고915.12-J46s), 『포천군읍지』(고915.12-P751g)도 읍지수상령으로 제작한 읍지이다.

실려 있다. 경기도 '26 죽산'의 『죽산읍지』(규10738), 충청북도 '1 옥천읍지'의 『옥천읍지』(규10764), '2 청풍, 영춘, 제천, 단양'의 『충청북도각군읍지』(규10763), 충청남도 '7'부터 '13'까지 31개 고을을 수록한 『[호서]읍지』(규10767), 전라남도 '16 여수읍지'의 『여수지』(규10795)이다. 앞서 살펴본듯이 이 가운데 『죽산읍지』는 『각도읍지』에 수록된 1832년지를 1899년에 후사한 것이고, 3종은 충청도의 1895년지이며, 『여수지』는 1902년에 목판으로 改刊한 '전라남도여수읍지'이다. 한편, <표 3> 연번 2에는 『읍지대장』에 보이지 않던 읍지 26종을 포함하고 있다. 1899년 이전에 편찬한 읍지가 10종이고, 1900년대에 구지를 베낀 후사본이 12종이다. 이들 후사본 읍지는 대부분 계선과 지도가 없는데, 저본은 인찰공책지에 정서하였거나 인쇄하였으며, 지도를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⁴¹⁾ 『충청남도읍지』와 『충청북도읍지』는 등사본이며,⁴²⁾ 『여수지』 2종은 1902년(광무 6)에 간행한 1종의 인쇄본과 1종의 후사본이다.

<표 5> 1899년 각군읍지를 제외한 읍지 목록(규10699-규11004 중에서, 강원도 제외)

연번	도	청구번호	읍지	편찬시기		판본	비고
				지리지 정보	제작시기		
1	경기	규10738	죽산읍지	1832	1899	후사본	『읍지대장』 경기도 '26 죽산', 1832년지의 후사본
2	충북	규10764	옥천읍지	1885	1895	필사본	『읍지대장』 충청북도 '1 옥천읍지'
3	충북	규10763	충청북도각군읍지	1895	1895	필사본	『읍지대장』 충청북도 '2청풍, 영춘, 제천, 단양'
4	충남	규10767	[호서]읍지	1895	1895	필사본	전7책, 『읍지대장』 충청남도 '7-13', 충청도 31개 고을 읍지

41) 『제주읍지』는 장서각의 복사본인 『제주읍지』(K2-5117)의 원본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대구부읍지』는 구지를 베끼면서 인물 등에 수록한 다수의 인물을 '아무개 외 몇 인'식으로 생략하였다. 경상남도 함안군의 사찬읍지를 재필사한 『함주지』(규10985)는 관리번호를 배정할 때 함흥군읍지로 착각하여 '함경남도각군읍지' 일련번호 가운데 하나를 지정한 것이다.

4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인 『충청남도읍지』(규15235)와 『충청북도읍지』(규15236)도 『충청남도읍지』(규10769) · 『충청북도읍지』(규10761)와 같은 시기에 등사한 복본이다.

5	전남	규10795	여수지	1902	1902	인쇄본	『읍지대장』 전라남도 '16 여수읍지'
6	평북	규10952	상원지	1730	1730	필사본	평남 상원, 烏絲欄, 地圖 없음
7	충북	규10760	회덕현지	1723	1758	필사본	충남, 忠淸道懷德誌, 烏絲欄
8	경북	규10834	청송부읍지	1760	1758	필사본	慶尙道青松誌, 朱絲欄
9	경북	규10817	의흥읍지	1767	1768	필사본	烏絲欄
10	경기	규10743	수원부읍지	1785	1789	필사본	朱絲欄
11	전남	규10800	광주목지	1798	1798	필사본	光州牧志, 烏絲欄, 地圖 없음
12	경기	규10740	광주부읍지	1801	1832	필사본	烏絲欄, 地圖 없음
13	함남	규10986	갑산삼수장 진읍지	1871	1872	필사본	전4책, 『[관북]읍지』(규667)와 인찰공 책지가 동일하며, 원래는 이 도지의 일부였다.
14	함북	규10995	관북읍지	1872	1872	필사본	전5책, 함경도 24개 고을 읍지
15	경기	규10742	강화부읍지	1881	1881	필사본	丙寅殉節(1866), 辛未殉節(1871), 辛 巳年(1881)內帑庫所在各種 …
16	경기	규10699	강화부지	1783	1900년대	후사본	靑絲欄,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17	경기	규10741	광주부읍지	1801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18	충북	규10765	부여현읍지	1780	1900년대	후사본	충남 부여, 界線 없음
19	충북	규10766	공산지	1859	1900년대	후사본	충남 공주, 界線 없음
20	전남	규10796	제주읍지	1781-89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저본은 1786년지
21	경북	규10810	대구부읍지	1907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22	경남	규10874	창원웅천읍 지	1908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23	경남	규10875	남해군읍지	1907	1900년대	후사본	界線 없음
24	경남	규10876	통영지	1843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25	황해	규10886	봉산군여지 지	1899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26	평북	규10948	강계지	1877	1900년대	후사본	界線·地圖 없음
27	함남	규10985	함주지	1587	1900년대	후사본	경남 함안, 界線·地圖 없음
28	충북	규10761	충청북도읍 지	1907	1907	등사본	전6책, 충청북도 18개 고을 읍지
29	충남	규10769	충청남도읍 지	1906	1906	등사본	전9책, 충청남도 36개 고을 37개 읍지 (부여 2종)와 1개 진지(平薪鎭誌)
30	전남	규10794	여수지	1902	1902	인쇄본	여수읍지
31	전남	규10793	여수지	1902	1900년대	후사본	여수지

한편, 대한제국에서 1899년 3월 경운궁 흙문각에 내입한 이문원의 『각도읍지』 72책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 가운데 경상도편을 제외한 53책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경상도읍지』(1832) 19책을 포함하고 있었다.⁴³⁾ 1832년(순조 32)과 그 이전 시기에 편찬한 읍지였다. 『각도읍지』는 내입할 당시 23개 고을 읍지를 분실한 상태였다.⁴⁴⁾ 대한제국은 『각도읍지』 72책 내입을 계기로, 분실읍지와 신설군의 읍지를 보충한 『각도읍지』 보유편 8책을 제작하였다. 『각도읍지』 보유편 8책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 가운데 제36책(전라도), 제62·63·64·65책(평안도), 제73·74책(함경도) 및 규장각의 『경상도읍지』 제8책이다. 평안도 12개, 함경도 9개, 경상도 4개 고을은 1871-72년에 편찬한 『관서읍지』(규12168), 『북관읍지』(규12170), 『영남읍지』(규12173)의 해당 고을 읍지를 배긴 것이다. 『각도읍지』 제36책 여수군·지도군·완도군·돌산군과 제73책에 실린 성진군은 신설군으로 1899년지를 배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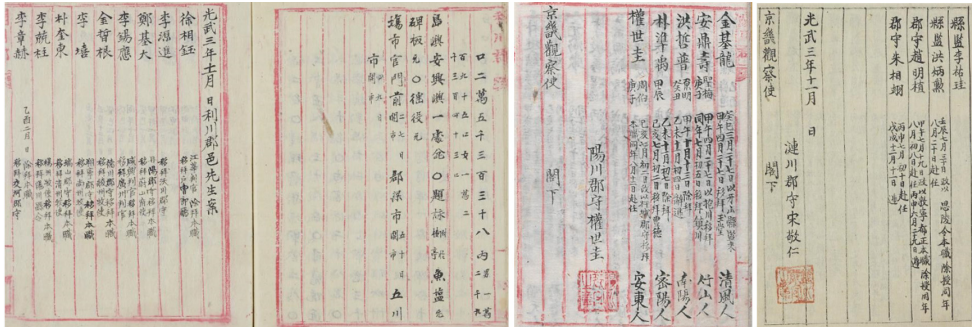
대한제국 각군에서는 1899년 5월·6월 읍지 상송 이후에도 또다시 읍지를 편찬하여 도 관찰부로 상송하였다. 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평안북도에는 1899년 하반기부터 1900년 초에 편찬한 읍지가 일부 남아있다. 경기도 『시흥군읍지』의 내제와 충청북도 『괴산군읍지』의 표제를 보면 1899년 11월에 편찬한 읍지이다.⁴⁵⁾ 경상북도 진보군도 이전 읍지의 환적에는 임백순까지였는데, 유정헌을 추가한 뒤, 뒷틀 기재하였다. 1899년 8월에 부임한 진보군수 오형묵이다.⁴⁶⁾ 『여지도서』 보완유형(『경상도읍지』 유형)인 경상북도 『군위군읍지』 환적, 경상남도 『거제군읍지』 선생안, 『함안군읍지』 환적을 보면 모두 1899년 상반기에 상송한 읍

43) 『奎章閣書目』(摛文院書目, 奎11670-3) 웹이미지 67, ‘『각도읍지』 72권’ 기록의 인찰공책지 위에는 1899년 3월 궁중으로 內入하여 경운궁 흠문각에 둔 기록(己亥三月日內入 移峙于欽文閣)이 있다.

44)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2020, 앞의 논문, 397-401쪽을 참고할 것: 경도와 한성부의 읍지는 『동여비고』, 『동국여지비고』 등이 있었기 때문에 補遺篇 제작의 대상이 되지 않은 듯하다.

45) 『시흥군읍지』(상백고915.11-Si28) 표제 “始興邑誌 附龍仁”, 내제 “光武三年十一月日 始興郡邑誌”, 『괴산군읍지』(K2-4217) 표제 “己亥十一月日槐山郡邑誌”

46) 『진보군지』(국립중앙도서관 古2754-19): 『비서원일기』 고종 34년 5월 29일 정사[양력 6월 28일] “任眞寶郡守俞正憲”, 『비서원일기』 고종 36년 6월 25일 신축[양력 8월 1일] “任慶源郡守俞正憲, 任眞寶郡守吳弘默”



〈그림 8〉 『이천부읍지』, 『양천군선생안』, 『연천군읍지』

◎藏書閣

지들보다 수록 내용이 충실하다.⁴⁷⁾ 평안북도 『박천군읍지』의 내제를 보면 1899년 10월에 제작한 것인데 판심에 박천군이 새겨진 인찰공책지를 사용하였다.⁴⁸⁾

한편, 경기도에서는 1899년 10월·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각군의 읍지를 수집하였다. 〈그림 8〉 『이천부읍지』 장시 항목 다음에 별지로 시작한 ‘광무 3년 11월일 이천군읍선생안’과 『양천군선생안』·『연천군읍지』의 권말 기록을 보면 경기도 관찰부에서 수집한 읍지이다.⁴⁹⁾ 당시 경기도 관찰부에서는 읍지에 수록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하달하였는데, 많은 고을은 수록규정을 준수하였다. 1899년 10월 이후 편찬한 장서각의 ‘경기도읍지’ 수록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⁵⁰⁾

- ①地界全圖, ②연혁, ③방리, ④결충, ⑤호총, ⑥환충, ⑦驛賭, ⑧풍속, ⑨고적, ⑩토산, ⑪인물, ⑫충효열, ⑬명환, ⑭능침전각, ⑮사찰, ⑯城堞烽燧, ⑰산천, ⑱명승, ⑲제영, ⑳선생안

47) 『군위군읍지』(K2-4220) “林雨相 司馬己亥任”(1899), 『군위군읍지』(규10842) “任瑒 司馬庚辰任”(1760); 『거제군읍지』(K2-4206) “兪果煥 通政大夫 戊戌八月十五日到任”(1898), 『거제군읍지』(규10885) “兪果煥”; 『함안군읍지』(K2-4334) “朴性淵 戊戌來同年貶罷”(1898), 『함안군읍지』(규10879)는 『여지도서』 유형으로 선생안이 없다.

48) 『박천군읍지』(상백고915.18-B146) “光武三年十月日博川郡邑誌”

49) 김전배, 1972 앞의 논문, 32면.

50) 정대영, 앞의 논문, 103면 참고.

1899년 말 경기도에서는 선생안의 수집에 주력하였다. 경기도에서 편찬한 읍지 가운데 다수는 표제나 내제, 혹은 裏題 등의 서두에 ‘광무삼년시월일’ 등을 표시하였으며,⁵¹⁾ 선생안에는 읍지 편찬 당시나, 직전 지방관까지 수록하였다.⁵²⁾ 양천군은 읍지의 환적에 1899년(기해) 8월에 부임한 권세규까지 수록하였으나, <그림 8>처럼 『양천군선생안』을 별책으로 만들어 상송하였다.⁵³⁾ 안산군은 1900년(광무 4) 3월에야 제출하였고, 강화부는 선생안만 확인되며,⁵⁴⁾ 개성부의 읍지나 선생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899년 상반기 읍지수상령 당시 개성부에서 『중경지』(규 10734)를 상송한 것을 보면, 장서각의 목활자본인 『송경지』(1830년)와 목판본인 『강화부지』(1783년)도 당시 수집한 읍지가 아닌가 한다.⁵⁵⁾

장서각의 『수원군읍지』는 규장각도서와 경기도도서의 읍지처럼 내제가 ‘광무3년 5월일 수원군읍지’로 동일하지만, 1899년 10월 경기도 관찰부에서 각군의 읍지와 선생안을 수집할 당시에 편찬한 읍지로 보인다. 표제는 ‘수원읍지’이며, 비록 ‘경기도읍지’ 수록규정을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5월에 상송한 두 읍지와 달리 선생안 뒤에 華城○○○와 華城誌續編을 수록하였다. 당시 수원군수는 1899년 양력 2월에 부임한 이범선이였다.⁵⁶⁾

51) 光武三年五月日 : 『수원군읍지』(K2-4251).

光武三年十月日 : 『가평읍지』(K2-4201), 『교하군읍지』(K2-4219), 『김포군읍지』(K2-4226), 『양주군읍지』(K2-4263), 『양지군읍지』(K2-4264), 『진위읍지』(K2-4313), 『파주군읍지』(K2-4323), 『풍덕군읍지』(K2-4332).

光武三年十一月日 : 『교동군읍지』(K2-4218), 『부평군읍지』(K2-4241), 『삭녕지』(K2-4243), 『양근군읍지』(K2-4260), 『연천군읍지』(K2-4269), 『영평군읍지』(K2-4273), 『음죽군읍지』(K2-4286), 『이천부읍지』(K2-4287), 『장단군지』(K2-4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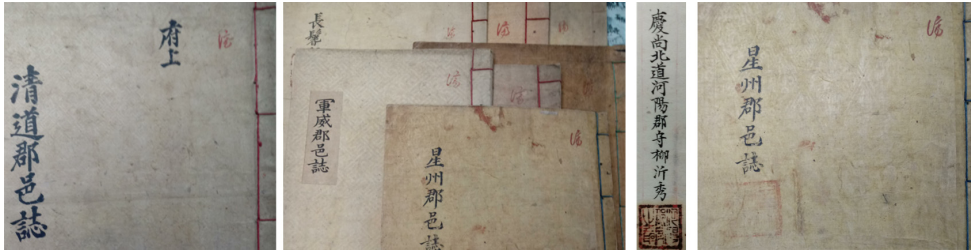
光武三年十二月日 : 『마천군읍지』(K2-4235), 『시흥군읍지』(부 龍仁縣誌, K2-4252), 『안성읍지』(K2-4256), 『죽산군읍지』(K2-4306), 『지평군읍지부선생안』(K2-4310).

52) 『고양군여지승람』(K2-4212), 『과천현읍지』(K2-4214), 『광주부읍지』(K2-4216), 『남양읍지』(K2-4227), 『양성읍지』(K2-4261), 『양천읍지』(K2-4265), 『여주읍지』(K2-4267), 『용인군지』(K2-4282), 『인천부읍지』(K2-4290), 『적성군지』(K2-4297), 『통진읍지』(K2-4321), 『포천읍지』(K2-4331).

53) 『양천군선생안』(K2-561).

54) 『안산군읍지』(K2-4255) 裏題 “光武四年三月日安山郡邑誌”, 『강화부선생안』(K2-499).

55) 『松京誌』(K2-4249), 『江華府志』(K2-4204).



〈그림 9〉 계명대학교의 '경상북도 읍지'

©계명대학교 벽오고문헌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에는 20개 군의 '경상북도 읍지'를 소장하고 있다.⁵⁷⁾ 〈그림 9〉에서 보듯이 표지마다 붉은 글씨로 '濟'자를 표시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경상도 일원의 『영일읍지』(1929), 『경주읍지』(1933), 『울산읍지』(1934), 『盈寧勝覽』(영덕과 영해읍지, 1935) 편찬에 저작 겸 발행인 등으로 참여한 金鎔濟 소장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읍지』 우측 상단에는 '府上'을 부기하였는데, 경상북도관찰부에 상송한다는 의미이다. 읍지들 중에는 표지와 본문에 관인을 찍은 경우가 많고, 『경상북도하양군읍지』 말미에는 '경상북도하양군수유기수'라 쓰고 관인을 찍었다. 『성주군읍지』는 환적이 1899년 2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에 교체된 申慶均(己亥二月到任 同年十二月遞歸)까지이다. 內部에 상송한 『경상북도성주군읍지』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수록내용이 다르거나 추가한 내용도 일부 보인다. 따라서 이들 읍지는 경상북도 각군에서 또 한 차례 읍지를 편찬하여 경상북도관찰

56) 『水原府邑誌』(奎10702), 『水原郡邑誌』(古915.12-Su93g), 『수원군읍지』(K2-4251): 『秘書院日記』 고종 35년 12월 27일 병오[양력 2월 7일] “任水原郡守李範善, 任大邱郡守金榮浩”; 『秘書院日記』 고종 36년 12월 16일 기축[양력 1월 16일] “任恩津郡守李範善, 任水原郡守金容鎮”

57) 『慶山郡邑誌』(951.984 경상북ㄱ), 『軍威郡邑誌』(951.983 경상북구), 『大丘府邑誌』(951.984 대구부), 『聞慶郡邑誌』(951.982 경상북ㄴ), 『比安郡邑誌』(951.982 경상북ㄷ), 『星州郡邑誌』(951.983 경상북ㄹ), 『新寧郡邑誌』(951.985 경상북ㄱ), 『盈德郡邑誌』(951.982 경상북여), 『永川郡邑誌』(951.985 경상북ㅇ), 『寧海郡邑誌』(951.982 경상북ㅇ), 『禮安郡邑誌』(951.982 경상북ㅇ), 『醴泉郡邑誌』(951.982 경상북예), 『龍宮郡邑誌』(951.982 경상북요), 『義興郡邑誌』(951.983 경상북ㅅ), 『長鬐郡邑誌』(951.985 경상북ㅅ), 『眞寶郡邑誌』(951.982 경상북ㅅ), 『淸道郡邑誌』(951.984 경상북ㅅ), 『靑松郡邑誌』(951.982 경상북ㅅ), 『豊基郡邑誌』(951.982 경상북ㅅ), 『河陽郡邑誌』(951.984 경상북ㅎ)

부에 상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의 읍지들 중에는 구지를 그대로 베낀 경우들이 많아 19세기 말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계명대학교의 『군위군읍지』는 규장각의 『군위군읍지』와 표제와 내제만 다르고 수록내용은 동일하다.⁵⁸⁾ 계명대학교의 『용궁군읍지』도 규장각의 『용궁군신증읍지』와 내용이 동일하다.⁵⁹⁾ 규장각본은 20행인데 비해 계명대본은 18행이며, 두 읍지 모두 표제는 ‘경상북도용궁군읍지’이다. 누정에 신증한 임청각 기록(新增臨淸閣 今上乙亥 邑倅 李思質創建)의 금상을 해가 1755년(영조 31)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⁶⁰⁾ 1758년경에 편찬한 『여지승람』 계통의 읍지인데, 당시 편찬한 읍지 복본이거나, 1899년에 베낀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록순서에 따라 항목마다 해당 내용을 충실히 신증하였다. 『여지승람』 개설 항목 가운데 ⑨관방과 ⑮창고만 빠져 있으며, 제언과 방곡을 신설하였다. 신증은 항목을 신설한 경우는 항목 앞에, 이전 항목에 내용을 추가한 경우는 이전의 기록 뒤에 표시하였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역’, ①건치연혁[관원, 진관 포함], ②군명, 신증방곡, ③성씨 신증, ④풍속 신증, ⑤형승, ⑥산천 신증, ⑦토산, ⑧성곽, ⑩봉수, ⑪궁실, ⑫누정 신증, ⑬학교, ⑭역원, ⑯신증교량, 신증제언, ⑰불우 신증, ⑱사묘, ⑲신증총묘, ⑳고적 신증, ㉑신증명환, ㉒인물 신증(安俊 외 43명), 효자 신증(潘冲 외 6명), 신증열녀 9명(附 신증 忠奴命春 忠婢八女), ㉓제영

1900년 5월 16일 고성군에서 분리한 경상남도 진남군에서는 읍지를 편찬하면서 군 신설과 관련한 칙령을 실었다.⁶¹⁾ 『인제군읍지』(상백고915.16-In4)는 표제가 ‘광

58) 『군위군읍지』(951.983 경상북구)는 지도가 없고, 표제 군위군읍지, 내제 군위읍지이며, 『龍宮郡新增邑誌』(규10842)는 지도를 수록하였으며, 경상북도군위군읍지, 군위군읍지이다.

59) 『용궁군읍지』(951.982 경상북요), 『龍宮郡新增邑誌』(규10847).

60)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8월 8일 을묘 “李思質爲龍宮縣監”

61) 『진남군지: 통영군지』(국립중앙도서관 고2758-5), 『진남군지』(상백고915.152-J563): 국립중앙도서관의 『진남읍지: 통영군지』는 다른 고을의 1899년지처럼 전국 모든 고을 읍지를 완비하려는 과정에서 편찬한 것이다. 호구가 1900년 10월에 조사한 내용인 것을 보면 1900년 말에 편찬한 읍지이다.

무 5년 8월일 인제군선생안읍지'인 것을 보면 1901년지인데, 판심에 인제군을 새긴 붉은색 인찰공책지를 이용하였다.

5. 맺음말

1899년(광무 3)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각군의 읍지와 지도 2건씩을 한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관찰부에서 동일한 형식을 갖춘 도지를 편찬하였다. 대한제국기 지방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훈령을 내릴 때 읍지에 수록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군은 동일한 형태의 읍지를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에서는 각군이 알아서 제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편찬한 읍지를 그대로 상송하거나 구지를 베끼거나 인쇄하여 상송하였다.

그동안 1899년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한성부를 포함한 전국 342개 부·군에서 제작한 읍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의 『읍지대장』과 규장각의 청구기호는 1899년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총독부 참서관실에서 1899년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읍지대장』은 각군읍지를 도별 군별로 번호와 읍지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읍지를 제외하면 1899년에 제작한 312개 군의 읍지 목록이다. 이들 읍지를 규장각의 청구기호와 대조해 보면, 경기도부터 함경북도까지 일정한 번호대에 연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읍지대장』에 실린 5종 38개 읍지와 강원도 읍지 23종은 내부의 읍지수상령과 관계없는 읍지이다. 강원도의 22종 25개 고을 33개 읍지는 1910년대 초반 총독부 참서관실의 지시로 강원도청에서 제작한 것이며, 강원도 양양군 읍지인 『현산지』도 1911년경에 편찬한 읍지이다. 장서각은 강원도 26개 군의 1899년지를 소장하고 있다.

1899년 당시 지방행정구역인 342개 부·군 가운데, 강원도 26개 군을 제외하면, 『읍지대장』에서는 한성부, 경상북도 경주군, 평안남도 성천군, 함경남도 함흥군의

4개 읍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읍지대장』과 규장각 목록에 실려 있던 평안북도 영변군 읍지는 분실한 상태이며, 성천군 읍지는 ‘후사본 읍지’ 중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서 1899년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한성부·경주군·영변군·함흥군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한제국에서는 1899년 3월 『각도읍지』 72책의 경운궁 흠문각 내입을 계기로, 분실읍지와 신설군의 읍지를 보충한 『각도읍지』 보유편 8책을 제작하였다. 또한 내부의 읍지수상령 직전인 1898년 12월경부터 시범적으로 강원도 각군의 읍지를 수집하였으며, 1899년 5·6월 각군의 邑誌修上 이후 1899년 말부터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에서 재차 수집한 각군읍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규장각의 읍지는 청구번호대별로 제작시기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규장각의 도서목록 등을 활용하여 제작시거나 저본의 편찬시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규장각 등 국내 기관만이 아니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 해외기관 소장의 읍지까지 망라하여 현존 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읍지 수록항목을 주제별로 접근하여 도별, 혹은 전국 단위로 분석하게 되면, 조선후기 국가의 지방 지배 방식과 지방 사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투고일(2021. 10. 30),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3)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 『관동읍지』(일본 동양문고 Ⅷ-2-147), 『진위군읍지』(20.25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 『동국여지비고』(고2710-2-137), 『조선총독부고도서 목록』(조92-4), 『진남읍지: 통영군지』(고2758-5), 『진보군지』(고2754-19), 『황성신문』.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_____, 『조선왕조실록』(http://www.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일신』, 직원록자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장각서목』(이문원서목, 규11670-3), 『[규장각] 도서출납부』(규26798), 『동국여지비고』(가람고915.1-D717, 古4790-10), 『북한지』(규3299, 가람고951.2-Se65b, 한은392), 『읍지대장』(규26750).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kyujianggak.snu.ac.kr/geo).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ianggak.snu.ac.kr/geo).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경기도시흥군읍지』(B16BB-0002), 『부평군읍지』(B16BB-0016), 『진위군읍지』(BB16BB-0041), 『지평군읍지여지도』(B16BB-0037), 『양성군읍지부지도』(B16BB-0025).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今西博士蒐集 マイクロフィルム版 朝鮮史原本コレクション (東京: 雄松堂書店, 1968, 원소장처 일본 덴리대학 덴리도서관 이마니시문고) 『春川誌』(附 狼川, 54필), 『江原道安峽郡邑誌』(26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 김백철, 2016 『고종대 읍지의 연대분류 시론 - 규장각 자료의 서지비교를 중심으로』, 『규장각』 49.
- 김전배, 1972 『조선조의 읍지 연구 : 현존읍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_____, 1974 『조선왕조의 읍지연구』, 『한국비블리아』 2.
- 김태웅, 1994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서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 16.
- _____, 2013 『근대개혁기 전국지리지의 기조와 특징 - 규장각 소장 읍지를 중심으로』, 『규장각』 43.

-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재두, 2020a 『규장각 일부 후사본 읍지와 이마니시문고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74.
- _____, 2020b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4.
- _____, 2021 『조선후기 관찬읍지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대영, 2011 『1899년 전국읍지상송령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 17,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AbstractEach County Gazetteer and *Eupjidaejang*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Lee, Jae-doo *

In 1899, the Korean Empire ordered the 13th Provincial Observatory to submit two Eupjis and maps of each county within a month.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local situation during the Korean Empire, it would have been desirable for each county to produce the same type of Eupji(County Gazetteer) by presenting the items in detail. However, at that time, only Jeollabuk-do compiled Provincial Eupji with the same format. In other provinces, each county made it possible to produce it on its own, so the previously compiled County Gazetteer was transferred as it was copied or printed. Thus, despite the large number of studies on the 1899 Eupjis, it was not possible to properly grasp the reality of the County Gazetteer produced by 342 counties nationwide, including Hanseongbu.

However, *Eupjidaejang* and the book number of Kyujanggak provide very important clues in confirming the 1899 Eupjis. *Eupjidaejang*, which was surveyed by the Governor-General's Office, records the number and Eupji names of each county by province, and is a list of Eupjis of 312 counties produced in 1899, excluding some Eupjis. Comparing with the book number of Kyujanggak, it is continuously in a certain number range from Gyeonggi-do to Hamgyeongbuk-do. However, 38 eupjis of 5 kinds of *Eupjidaejang* are not related to books produced by the instruction of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33 eupjis of 25 counties of 22 kinds in Gangwon-do were produced by

* Special Researcher,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Gangwon-do Office und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or-General's Office in the early 1910s.

Considering that Jangseogak houses Eupjis in 1899 in 26 counties in Gangwon-do, only four Counties in Hanseongbu, Gyeongju-gun, Seongcheo-gun, and Hamheung-gun are not identified in *Eupjidaejang*. Eupji of Yeongbyeon-gun, Pyeonganbuk-do, is found in the list of *Eupjidaejang* and *Kyujanggak*, but has been lost. The County Gazetteer of Seongcheon-gun is identified among the 'Copied Eupjis'. Therefore, among the 342 counties, which wer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time of 1899, only Hanseong-bu, Gyeongju-gun, and Hamheung-gun, Yeongbyeon-gun, were not identified in *Kyujanggak* and *Jangseogak*.

Key words : the Korean Empire(大韓帝國), In 1899, each County Gazetteer(各郡邑誌), *Eupjidaejang*(『邑誌臺帳』), Eupji(邑誌, County Gazetteer).

〈부표〉 『읍지대장』과 규장각 소장 1899년 각군읍지 목록(규10699-규11004)

경기도				청구기호	서명	번호	읍지명
청구기호	서명	번호	읍지명	규10858	창녕군읍지	11	창녕군
규10699	강화부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859	웅천군읍지	10	웅천군
규10700	이천군읍지	38	이천군	규10860	곤양군읍지	13	곤양군
규10701	광주부읍지	36	광주군	규10861	산청군읍지	07	산청군
규10702	수원부읍지	37	수원군	규10862	함양군읍지	19	함양군
규10703	강화부지	33	강화부지	규10863	합천군읍지	20	합천군
규10704	통진군읍지	16	통진군 (부도1)	규10864	초계군읍지	01	초계군
규10705	남양군읍지	34	남양군	규10865	의령군읍지	22	의령군
규10706	용인군지	20	용인군	규10866	양산군읍지	21	양산군
규10707	김포군읍지 급지도성책	22	김포군	규10867	밀양군읍지	17	밀양군
규10708	과천군읍지	12	과천군	규10868	사천읍지	23	사천군
규10709	고양군여지 승람	28	고양군	규10869	철원군읍지	24	철원군
규10710	여주읍지	23	여주목	규10870	고성군읍지	25	고성군
규10711	경기도시흥 군읍지	19	시흥군	규10871	영산군읍지	26	영산군
규10712	파주군읍지	10	파주목	규10872	언양군읍지	27	언양군
규10713	인천부읍지	11	인천부	규10873	울산군읍지	28	울산군
규10714	경기도진위 군읍지여지 도성책	35	진위군	규10874	창원웅천읍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715	부평군읍지	21	부평군	규10875	남해군읍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716	지평군읍지 여지도	15	지평군	규10876	통영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717	안산군읍지	05	안산군	규10877	동래부읍지	14	동래부읍지
규10718	삭녕지	07	삭녕군	규10878	김해읍지	15	김해군
규10719	적성군지	08	적성군	규10879	함안군읍지	29	함안군
규10720 의 1	죽산군읍지	26	죽산군	규10880	남해읍지	30	남해군
규10720 의 2	죽산군읍지	26	죽산군	규10881	단성군읍지	06	단성군
규10721	양천군읍지	09	양천군	규10882	거창군읍지	05	거창군
규10722	영평군읍지	31	영평군	규10883	진주군읍지	04	진주목

규10723	양지군읍지	06	양지군	규10884	창원읍지	02	창원부
규10724	음죽군읍지	13	음죽군	규10885	거제군읍지	03	거제군
규10725	마전군읍지	17	마전군	황해도			
규10726	안성군읍지	02	안성군 (부도1)	규10886	봉산군여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727	교하군읍지	18	교하군	규10887	서흥군읍지	04	서흥군
규10728	양근군읍지 여지도성책	14	양근군	규10888	황해도장련군 읍지	02	장련군
규10729	가평군읍지 성책	27	가평군 (부도1)	규10889- v.1-3	연안부지	03	연안군 1,2,3
규10730	포천군읍지	04	포천군	규10890	토산군읍지여 지도성책	05	토산군
규10731	교동군읍지	29	교동군	규10891	은율군지	06	은율군
규10732	양성읍지	25	양성군	규10892- v.1-2	해주지	01	해주군 1,2
규10733	양주군읍지	01	양주군	규10893	배천군읍지	08	배천군
규10734	중경지	32	개성부지 1,2,3,4	규10894	황해도안악군 읍지성책	13	안악군
규10735	풍덕군읍지	30	풍덕군	규10895	황주읍지	09	황주군
규10736	연천군읍지	24	연천군	규10896	수안군읍지	10	수안군
규10737	장단군읍지	03	장단군	규10897	곡산읍지	11	곡산읍지
규10738	죽산읍지	26	죽산(1832년지의 1899년 후사본)	규10898	채령군읍지	12	채령군
규10739	북한지		[분실]	규10899	풍천군읍지	14	풍천군
규10740	광주부읍지		1832년 필사본	규10900- v.1	봉산군여지	07	봉산읍지
규10741	광주부읍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900- v.2	봉산군여지	07	봉산지도
규10742	강화부읍지		1881년 필사본	규10901	강령군읍지	19	강령군
규10743	수원부읍지		1789년 필사본	규10902	송화군읍지	16	송화군
충청북도				규10903	금천군읍지	17	금천군
규10744	청풍군읍지	15-2	청풍군	규10904	평산군읍지	18	평산군
규10745	단양군읍지	15-4	단양군	규10905	용진소강읍지	15	용진소강읍지
규10746- v.1-2	영춘군읍지	15-3	영춘군 (부도1)	규10906	장연군읍지	20	장연군

규10747	청주군읍지	08	청주목	규10907	신천군읍지	21	신천군
규10748	진천군읍지	13	진천군	규10908	문화군읍지 도병록성책	22	문화군
규10749	황간군읍지	07	황간군	규10909	신계현읍지	23	신계군
규10750	제천군읍지	06	제천군	평안남도			
규10751	회인군읍지	04	회인군	규10910	중화군읍지	20	중화군
규10752	영동읍지	12	영동읍지	규10911	영원군읍지성책	16	영원군
규10753- v.1-2	연풍군읍지	14	연풍군 (부도1)	규10912	강동군읍지	15	강동군
규10754	청안군읍지	09	청안군	규10913	자산군읍지	12	자산군
규10755	충청북도괴 산군읍지	11	괴산군	규10914	상원지	10	상원군
규10756	청산군읍지	10	청산군	규10915	함중군읍지	01	함중군
규10757	충청북도보 은군읍지여 지도	15-1	보은군	규10916	개천군읍지	02	개천군
규10758	충주군읍지	05	충주목	규10917	속천군읍지	14	속천군
규10759	옥천읍지	03	옥천군	규10918	은산군읍지	13	은산군
규10760	회덕현지		1758년 필사본	규10919	양덕군읍지	09	양덕군
규10761	충청북도 읍지		1907년 등사본	규10920	순천군읍지여 지도합부성책	11	순천군
규10762	음성군읍지	16	음성군	규10921	영유군읍지	06	영유읍지
규10763	충청북도각 군읍지	02	1895년 필사본	규10922	순안군읍지	08	순안군
규10764	옥천읍지	01	1895년 필사본	규10923	평양군읍지	22	평양읍지
충청남도				규10924	삼화지	21	삼화읍지
규10765	부여현읍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925	안주군읍지	19	안주목
규10766	공산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926	강서군읍지	18	강서군
규10767	[호서]읍지	7- 13	1895년 필사본	규10927	덕천군읍지안	17	덕천군
규10768	[충청남도] 읍지	1-6	충청남도(37군)	규10928	용강현지	07	용강군
규10769	충청남도 읍지		1906년 등사본	규10929	증산군읍지	04	증산군
전라북도				규10930	맹산군읍지	03	맹산군
규10770	전라북도각 군읍지	1	전라북도각군읍지 (26군)	규10931	삼등읍지	05	삼등군
규10771	홍덕군읍지	4	홍덕군	평안북도			
규10772	무장군읍지	2	무장군	규10932	창성읍지	01	창성군

규10773	고창군읍지	3	고창군	규10933	삭주군읍지	02	삭주군
전라남도				규10934	정주읍지	04	정주군
규10774	광양군읍지	11	광양군	규10935	회천군읍지책	03	회천군
규10775	옥과군읍지	10	옥과군	규10936	용만지	11	의주군 1,2
규10776	남평군읍지	08	남평군	규10937	선천군읍지	08	선천군
규10777	창평군읍지	09	창평군	규10938	영변군읍지	09	영변군[분실]
규10778	전라남도진도군읍지	23	진도군	규10939	운산군읍지	10	운산군
규10779	화순군읍지	22	화순군여지승람	규10940	가산군읍지	13	가산군
규10780	해남읍지	24	해남읍지	규10941	위원군읍지	14	위원군
규10781	나주군읍지	25	나주군	규10942	태천군읍지	15	태천군
규10782	장성군읍지	27	장성군	규10943	철산읍지	16	철산군
규10783	동북군읍지	04	동북군	규10944	팍산읍지	17	팍산군
규10784	담양군읍지	05	담양군	규10945	초산군읍지	18	초산군
규10785	곡성군읍지	03	곡성군	규10946	박천군읍지	21	박천군
규10786	지도군읍지 성책	02	지도군	규10947	용천군읍지	20	용천군
규10787	광주읍지	31	광주읍지	규10948	강계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788	강진군읍지	07	강진군	규10949	벽동읍지	05	벽동군
규10789	영광읍지	06	영광군	규10950	구성군읍지	06	구성군
규10790	전라남도영암군읍지여지도책	29	영암군	규10951-1	강계군읍지	07	강계군
규10791	신증승평지	01	순천군	규10951-2	강계군읍지	07	강계부지도
규10792	완도군읍지	30	완도군	규10952	상원지		1730년 필사본
규10793	여수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953-1	후창군읍지	19	후창군
규10794	여수지		1902년 인쇄본	규10953-2	후창군읍지	19	후창군지도
규10795	여수지	16	여수읍지(1902년 인쇄본)	규10954-1	자성군읍지	12	자성군
규10796	제주읍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954-2	자성군읍지	12	자성군지도
규10797	제주읍지	17	제주군				
규10798	정의읍고지	19	정의군고지				
규10799	대정군고지	18	대정군고지				
							강원도
규10800	광주목지		1798년 필사본	규10955	삼척군읍지	02	삼척군
규10801	낙안군읍지	20	낙안군	규10956	양양군읍지	03	양양군
규10802	능주군읍지	21	능주군	규10957	고성군읍지	08	고성군

규10803	여수군읍지	16	여수군	규10958	영월군읍지	11	영월군
규10804	신증홍양지	15	홍양군	규10959	평창군신지	12	평창군
규10805	장흥군읍지	14	장흥군	규10960	강릉부지	01	강릉부
규10806	보성군읍지	13	보성군	규10961	화천군읍지	18	화천군(낭천)
규10807	돌산군읍지	12	돌산군	규10962	김화군읍지	19	김화군
규10808	무안군읍지	28	무안부읍지	규10963	양구군읍지	17	양구군
규10809	함평군읍지 읍지도서	26	함평군	규10964	철원군읍지	16	철원군
경상북도				규10965	홍천군읍지	14	홍천군
규10810	대구부읍지		1900년대 후사본	규10966	정선군읍지	10	정선군
규10811	영해군읍지	35	영해군	규10967	원주읍지	09	원주군
규10812	영덕군읍지	36	영덕군	규10968	울진군여지 약본	07	울진군
규10813	청하현읍지	37	청하군				
규10814	연일군읍지	38	연일군	규10969	평해군읍지	12	평창군
규10815	홍해군읍지	39	홍해군	규10970	횡성군읍지	13	횡성군
규10816	장기군읍지	40	장기군	규10971	흡곡군읍지급 선생안	06	흡곡군(통천군 합철)
규10817	의흥읍지		1758년 필사본				
규10818	문경현지	17	문경군	규10972	간성군읍지	05	간성군
규10819	하양군읍지	34	하양군	규10973	회양군읍지	15	회양군
규10820	함창군읍지	04	함창군	규10974	이천읍지	09	원주군
규10821	자인읍지	05	자인군	규10975	평강읍지	16	철원군
규10822	의흥군읍지	06	의흥군	규10976	관동읍지	22	낭천, 회양, 금성, 춘천, 양구, 인제
규10823	풍기군지	07	풍기군				
규10824	청도군읍지	08	청도군				
규10825	김산군읍지	09	김산군	규10977	현산지		양양(1911년 필사본)
규10826	진보읍지	10	진보군	함경남도			
규10827	개령군읍지	11	개령군	규10978	이원군읍지	10	이원읍지
규10828	의성군지	12	의성군	규10979	북청군읍지	08	북청군
규10829	비안군읍지	13	비안군	규10980	장진군읍지	07	장진군
규10830	고령군읍지	14	고령군	규10981	홍원군지도여 읍지	06	홍원읍지
규10831	지례군읍지	15	지례군	규10982	단천군지	13	단천군
규10832	안동부읍지	16	안동군	규10983	덕원부읍지	01	덕원부읍지
규10833	신녕군읍지	18	신녕군	규10984	고원군읍지	09	고원군(부도1)
규10834	청송부읍지		1758년 필사본	규10985	합주지		1900년대 후사본 (경남 함안)

규10835	봉화군읍지	20	봉화군	규10986	갑산삼수장진 읍지		1872년 필사본
규10836	영주군읍지	26	榮川郡	규10987	안변도호부읍 지	02	안변지
규10837	성주군읍지	01	성주목	규10988	갑산군읍지	12	갑산군
규10838	대구부읍지	31	대구군	규10989	삼수군읍지	11	삼수읍지
규10839	예천군읍지	02	예천군	규10990- v.1-2	문천군읍지	05	문천군 (부도1)
규10840	현풍군읍지	03	현풍군	규10991	정평군읍지	03	정평군
규10841	청송군읍지	21	청송군	규10992	영흥군읍지	04	영흥군
규10842	군위군읍지	22	군위군	규10993	경흥부읍지	10	경흥부읍지
규10843	인동읍지	23	인동군	함경북도			
규10844	선산읍지	24	선산군	규10994	경성군읍지	01	경성군
규10845	예안군읍지	25	예안군	규10995	관북읍지		1872년 필사본
규10846	영양군지	27	영양군	규10996	경원군읍지	11	경원군
규10847	용궁군신증 읍지	28	용궁군	규10997	부령군읍지	02	부령군
규10848	상주군읍지	29	상주목	규10998	종성군지도여 읍지	08	종성군
규10849	경산군읍지	30	경산군	규10999	무산군읍지	07	무산군
규10850	칠곡부읍지	32	칠곡군	규11000	온성군읍지	09	온성군
규10851	순흥지	33	순흥군	규11001	회령군읍지	06	회령군
규10852	영천군읍지	19	영천군	규11002	성진군읍지	05	성진군
경상남도				규11003	길주목읍지	03	길주목
규10853	안의읍지	16	안의군	규11004	명천읍지	04	명천군
규10854	하동군읍지	18	하동군	규17487	성천읍지		성천군
규10855	삼가군읍지	08	삼가군	결본	한성부, 경주군, 함흥군		
규10856	진해군읍지	09	진해군	분실	『북한지』(10739) 『영변군읍지』(10938)		
규10857	기장군읍지	12	기장군	강원도	*장서각 소장 강원도 26개 군 읍지		
* 진하게 표시한 읍지는 1899년 각도, 각군에서 상송한 읍지가 아니다. 규장각 도서의 '강원도 읍지'는 1910년대 총독부 참서관실의 지시로 강원도청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